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11/19

##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대다수인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모든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19일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최근(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PX병으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논의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보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국갤럽이 알아봤습니다.

###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1월 4~7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
5.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5%(총 통화 7,929명 중 1,211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 주요 결과

-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76% > '이해할 수 있다' 21%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68% > '반대' 26%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 '군대보다 길어야 한다' 62% > '같아야 한다' 31%  
- 대체복무 연장 기간, '1년 미만' 41%, '1~2년 미만' 30%, '2년 이상' 23%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76% > '이해할 수 있다' 21%**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에게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은 결과 76%가 '이해할 수 없다', 21%는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0대 89%, 60세 이상 87%). 한편,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대(3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여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1	21	76	3
성별	남성	600	21	77	2
	여성	611	21	75	4
연령별	19~29세	208	24	74	1
	30대	251	36	61	3
	40대	262	28	70	2
	50대	235	8	89	3
	60세 이상	255	6	87	6

질문)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귀하는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68% > '반대' 2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찬성', 26%가 '반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의 76%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봤지만,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8%가 찬성했다. 이해 여부와는 별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징역형에 처할 사안으로는 보지 않은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의견이 성/연령/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우세한 가운데, 반대 의견은 남성(31%), 20대(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250명)의 87%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923명) 중에서도 찬성(63%)이 반대(31%)보다 많았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1	68	26	6
성별	남성	600	65	31	5
	여성	611	71	21	8
연령별	19~29세	208	59	35	5
	30대	251	73	23	5
	40대	262	73	21	6
	50대	235	70	24	5
	60세 이상	255	62	28	10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다	250	87	11	2
	이해할 수 없다	923	63	31	7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96	65	30	5
	민주당	271	72	22	7
	지지정당없음	398	67	25	8

질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 '군대보다 길어야 한다' 62% > '같아야 한다' 3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군대 복무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62%, '같아야 한다'가 31%로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56%)보다 남성(68%)에서, 저연령일수록 더 많아 특히 20대에서는 72%에 달했다(60세 이상 45%).

▶ 군대 복무기간 대비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같아야 한다	더 길어야 한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1	31	62	7
성별	남성	600	26	68	6
	여성	611	36	56	7
연령별	19~29세	208	25	72	3
	30대	251	30	68	3
	40대	262	29	65	6
	50대	235	31	63	6
	60세 이상	255	40	45	15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다	250	29	65	6
	이해할 수 없다	923	31	63	6
대체복무제 도입 찬반	찬성	820	37	58	5
	반대	316	14	77	8

질문) 만약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군대 복무기간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 연장 기간, '1년 미만' 41%, '1~2년 미만' 30%, '2년 이상 더 길어야' 23%**

대체복무기간이 군대 복무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616명)에게 얼마나 더 길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은 결과, '1년 미만'이 41%로 가장 많고, '1년~2년 미만' 30%, '2년 이상 더 길어야 한다'가 23%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복무기간이 군대 복무기간보다 2년 이상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17%)보다 남성(27%)에서, 저연령일수록(20대 31%, 50대 15%) 더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진 남성, 특히 최근 군 복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남성이 포함된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컸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 군대 복무기간 대비 대체복무 연장 기간 (단위: %)

구분		표본수(명)	1년 미만 더 길어야	1~2년 미만 더 길어야	2년 이상 더 길어야	모름/ 응답거절
대체복무기간 연장 의견자		616	41	30	23	6
성별	남성	333	38	31	27	4
	여성	283	44	30	17	8
연령별	19~29세	114	42	24	31	2
	30대	142	46	25	26	3
	40대	148	34	38	23	5
	50대	116	39	38	15	8
	60세 이상	95	45	24	17	14

질문)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그럼, 대체복무기간은 군대 복무기간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응답)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mailto:dhjang@gallup.co.kr)